

코스피 5642.21 (+88.29)	코스닥 1159.55 (+38.11)
금리 (연이자율) 3.558 (+0.035)	환율 (원/달러) 1502.45 (+7.25)

산업부
“3~5년간
LNG 수입 차질 없어”
03



후 대통령,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격려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靑, 중동상황 관리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비서실장 중심으로 운영
안보실장·정책실장, 부실장 맡아
총리 본부장 ‘비상경제본부’ 운영

청와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경제상황의 엄중한 관리를 위해 25일 ‘비상경제상황실’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한다.

홍익표 정부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언론설명회 갖고,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비상대응 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비상경제상황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의 산하에 설치되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안보실

장과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정무수석이 총괄간사,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황실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또 상황실 아래에 거시경제 물가대응반과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과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한다. 각 대응반장은 청와대 수석급이 맡아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대응반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위기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선제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컨트롤타워로 삼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해 범부처가 원팀 대응으로 뒷받침한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최고컨트롤타워로 해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는 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피지컬 AI 본격화... 개인, 삼전·하이닉스 ‘집중매수’

개인투자자, 이달 총 15조 사들여
KB증권 “삼성, 웨이퍼 내년까지 완판
타이트 수급환경 3년간 지속될 것”

3월 한 달간 코스피 지수가 급등락하는 가운데서도 동학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동 전쟁의 여파로 미국 달러화를 제외하고 주요국 통화 가치가 대부분 하락하는 ‘킹(king)달러’ 현상과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코스피를 비롯해 전 세계 증시가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

쳤지만, 동학개미들은 한국 반도체주 만큼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들어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총 매수액은 11조8664억원 규모다. SK하이닉스는 3조5892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순매수 2위다.

개인이 반도체에 베팅하는 배경에는 AI 중심의 구조적 성장 기대가 자리한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과거보다 길고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피지컬 AI 시

장로의 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D램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등 신규 시장에서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의 제한적인 웨이퍼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주요 고객사 수요는 이미 내년까지 완판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달 기준 메모리의 고객사 수요 충족률은 60% 수준에 달하고 있어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최소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융자산 확대해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변수가 한국 경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 향후 경제와 주식시장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중동발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생산·소비·재정 전반의 체력을 약화시키며 충격 흡수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외부 충격과 내부 구조적 취약성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박원갑 위원 “부동산 비중 과도시
변동성 국면에서 큰 리스크 작용”
윤종연 팀장 “리스크 확대 국면
현금흐름 안정적 확보 전략 중요”

김영의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겸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지난 24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L6·L7면>

한국은행은 올해 2월 경제성장률을 2.0%, 내년은 1.8%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직전(작년 11월) 대비 0.2%포인트(p) 상향했지만, 내년 전망은 0.1%p 낮았다.

국제 유가는 지난 24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4.49달러로, 중동사태 발발 이전인 2월 27일(72.48달러) 대비 약 44% 상승했다. 환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20원까지 다가서며 같은 기간 1471원에서 49원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중동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저성장 국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올해 2분기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진 뒤 3분기부터 시차를 두고 성장을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부충격이 고령화로 약해진 경제 구조 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소비 여력이 제한되며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 대응 여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비중이 과도한 ‘랜드 리치, 캐시 푸어(Land Rich, Cash Poor)’ 구조는 금리 상승기와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재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판단에 앞서 자신의 성과와 과거 투자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자산과 전략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윤종연 하나은행 Club1도곡 PB센터 지점 Gold PB 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부자들은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장기투자 자산을 유지하는 동시에, 채권과 예금 등 안정형 자산 비중을 높여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2026년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정운영 금융과행복 네트워크 이사장,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사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메트로신문

메트로 한줄뉴스



▲與 “국힘 청년 오디션 결과 참담...다시 ‘윤여게인’ 나타나”
▲조국혁신당 “국힘, 상임위원장 자리 뺏길까 발동동...일부부터 제대로” /사진 뉴시스

▲與 “‘마약왕’ 박원열 송환 계기 마약범죄 근절 총력, 입법지원 강화할 것”
▲한동훈, 장동혁 “서울·부산 수성”에 “다른 곳은 그냥 질 건가”

▲與,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에 “檢 악행 바로잡아야”
▲정청래 “추경 골든타임 안 놓친다...차량 5부제 저도 동참”